

# '내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 현실로'

### '2024 도전! 생활혁신 아이디어 리그' 개최, 30개 혁신 아이디어 발굴

전주첨단벤처단지가 혁신 창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전주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캠퍼스종합기술원, 전주대학교 LINC3.0 창의인력양성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도전! 생활혁신 아이디어 리그'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복합소재 생활혁신형, 드론연계형 바이오·헬스케어형, 디지털·ICT 융복합형 등 4개 분야에서 총 30개 팀이 참가해 열린 경쟁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참가 분야를 확대하고 시상 규모도 1천만원으로 확대, 더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



굴에 주력했다. 대회 첫날에는 PMF(Product Maker Fit) 기반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특강을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집중 멘토링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기술 및 경영멘토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끼리 최종 발표평가에서는 [수상

팀명 이 [아이디어명]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장려상 10팀이 선정되어 총 17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캠퍼스종합기술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팀들은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지원,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캠퍼스종합기술원 관계자는 "4년째 이어온 생활혁신 아이디어 리그는 전주첨단벤처단지가 창업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올 대회는 시가반 헬스케어, 친환경 소재 활용, 스마트팜 솔루션 등 우리 일상을 혁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캠퍼스종합기술원이 운영하는 전주첨단벤처단지는 2002년 조성 이래 전주산업의 한 축을 이끌고 있다. 특히 2020년 전주혁신창업허브가 들어선 이후 제조창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생활혁신 아이디어 리그'는 캠퍼스종합기술원이 주도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지난 4년간 136개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21건 이상 실제 창업으로 이어졌다.

노상흠 원장은 "생활혁신 아이디어 리그는 단순한 경진대회를 넘어 지역의 창의적 인재들이 실제 창업자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주혁신창업허브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난달 24~27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제18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 '전통·창의 아우러지다'

### 제18회 전북음식문화대전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난달 24~27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한 제18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 자치도 14개 시·군의 향토음식 전시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장이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요리경연대회는 전통과 창의가 공존하는 열정의 무대로 총 45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향토음식 부문에서는 순창의 '순창장맛삼합'을 선보인 프란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지역 고유의 맛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창작음식 학생 부문에서는

전북 음식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 '고구마 아라치니와 미니리제소 테린'을 요리한 한승현 최정운 학생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창작음식 일반·다문화 부문에서는 임실치즈와 토마토를 활용한 '임실치즈토마토김밥'과 '임실치즈고추장 불고기'를 조리한 김영미, 황태영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전북 음식에 현대적 창의성을 더한 작품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번 음식문화대전에서는 요리경연대회 외에도 참가자들이 지역 특산물과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요리배움 교실이 운영되었다. 요리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전북 고유의 음식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욱기 기자

## 전북은행, 제9회 금융의 날 저축·투자 부문 국무총리표창

### 올해 시기별 특판 8천여억원 판매완료, 저축증대·자산형성 지원·인프라 개선에 노력한 공로 인정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완주 행복한집에 성금 5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저축, 투자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지난 1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여의도 FIDI타워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전북은행은 지난해 포용 금융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에 이어 올해는 수신주진부 양은희 부장이 각종 프로그램 도입으로 저축 증대와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자산형성 지원 및 인프라 개선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전북은행은 묵묵히 단기 목표 달성, 안정적 투자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는 최적의 수신 상품들을 출시해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직업군 세대별 등 고객을 세분화해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 저축 및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영업점 및 모바일 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진행한 시기별 특판이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8천여억원 판매완료한 가운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예·적금 판매 및 저축상품 안내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적금금리 제고를 위한 시장금리 및 비교사이트 모니터링 등 고객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시니어 고객들의 금융 생활 전반에서 보다 강화된 혜택과 편의 제공을 위해 보험 서비스를 추가한 JB골든에이지 상품을 리뉴얼 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금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양은희 부장은 "올해 수신조달 구조 개선 및 금리 전략의 방향성에 맞춰 시장금리 모니터링과 금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업전과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하림, '1사1촌' 진안 마조마을 찾아 환경 정화활동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정천면 마조마을을 찾아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하림 임직원 20명과 마조마을 주민 10명은 경작지에서 발생한 폐비닐, 그물망, 고정근 등의 농업폐기물과 마을에서 버리기 힘든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진안군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해 안전한 배출을 위

해 분리작업까지 함께 진행했다. 정화활동 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앞서 하림은 2016년 마조마을과 1사1촌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2~3회 씩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꾸준한 교류 활동을 진행, △농산물 직거래 △마을 일손 돕기 △농촌 체험 및 관광 △마을 환경 정화 △식수 행사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상생 운동



을 지속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하림과 마조마을이 함께하는 교류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LX국토정보공사,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가 미래 UAM 시대를 이끌어갈 공간정보 핵심 인재 발굴에 앞장선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공사 등이 주관하는 제3회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대회가 지난달 31일 김천 드론지역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는 국내 UAM 산업 육성과 차세대 항공 분야 기술 확산을 위해 대학생이 제안한 공간정보 작품을 선보이는 경연의 장이다.

공간정보 부문을 주관하는 LX공사는 UAM 서비스 유형과 버티포트(수직이착륙비행장) 입지 선정용 공간정보(GIS) 분석 수행 및 도심항공교통 공간정보 구축 결과를 평가한다.

LX공사는 UAM 올림피아드 본선 대회를 앞두고 심사위원을 거쳐 총 8개 팀을 선발한 상태다. /김욱기 기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팀(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1팀(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장려상 2팀(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 베스트혁신상 1팀(김천시장상)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 토타라이프에 참여하고 있는 LX공사는 공간정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 버티포트와 UAM 전용 하늘길인 회랑을 중심으로 3차원 공간정보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